



(주) 무학

주류 및 음료관련사업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을 통하여 하루하루 새로운 창의력과 도전 의식으로 고객과 무학가족에게 풍요로운 삶과 질을 제공토록 공헌하는 (주)무학에 찾아가 보았다.

눈으로 보고 느낀 무학은 세계최고의 경쟁력 우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지만 야무진 기업, 사업부 단위 책임경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며 고객만족,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21세기 무학의 경영방침에 충실하고 있었다.



최재호 대표이사

무학의 역사

(주)무학은 1929년 소주와 청주를 제조하던 소화주류공업사로 시작하여 1965년 최우수 회장(현)을 중심으로 무학양조장으로 상호를 변경, 희석식소주 '무학'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이 모체이다.



- | | |
|---|---------------|
| 1 | 1. 무학상표의 변천 |
| 2 | 2. 출고중인 무학제품들 |

1970년대 들어서 소주양조장들이 업종을 전환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 경남지역의 36개 양조장을 통폐합·흡수하면서 무학주조(주)의 법인체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1973년 정부가 실시한 주정배정제로 인해 무학은 한정된 주정의 양이 주문을 따르지 못해 유통망이 축소되는 고충을 겪으면서도 생산설비의 확충과 진주·울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유통망을 재정비하고, 무학주정의 설립으로 질 좋은 제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공급함으로써 경남의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제 2의 도약

1990년대에 들어 무학은 최재호 대표이사로의 경영체제로 전환과 제2창업을 선언하고 과감한 조직개편과 함께 차별화된 순한소주 개발에 착수하여, 신제품 "100% 쌀로 만든 화이트소주"를 1995년 1월 출시하게 되었다.

화이트소주 출시와 동시에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에 실시로 경남지역 점유율을 80%이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무학은 77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희망찬 21세기를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4

3, 4 마산 본사공정시설



국내최초 자일리톨 소주!! 화이트소주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 "좋은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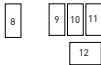
무학에서 생산하는 화이트소주는 국내 최초로 자일리톨을 첨가한 소주로 화이트 소주만의 상쾌하고 깨끗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화이트소주는 숙취해소에 좋은 산소를 72시간 제품에 주입, 숙성시켜 화이트소주만의 살아있는 맛, 부드러운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화이트소주는 몸에 이로운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 알라긴, 글리신, 알라닌을 더욱 강화하여 한층 더 상쾌한 맛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화이트소주 상표는 물과 새, 물고기 등 자연의 깨끗하고 상쾌함을 담고 있어 고객들에게 마시는 즐거움과 함께 보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화이트소주는 이름에 걸맞게 활성오니법을 이용한 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하여 물고기도 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만을 배출하고 있다.



- | | | |
|---|---|--------------|
| 5 | 6 | 5 폐수처리시설 |
| | 7 | 6 화이트소주 |
| | | 7 화이트소주 홍보활동 |





8, 12 좋은데이
9, 10, 11 무학의 3대 주력제품
(화이트소주, 매실마음, 가을국화)



그리고 올해 2006년 11월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날 함께하는 깨끗하고 좋은소주”, “좋은데이”를 출시했다.

좋은데이 소주는 한국 명산의 하나인 지리산 320m 암반수를 100% 사용한 천연의 알칼리수 소주이자 국내최초 16.9도의 초저도소주이며 초음파(超音波) 진동공법(Ultrasonic Wave Vibrations 공법)을 통해 장기간 자연숙성과 동일한 주질 개선 효과를 가능케 하고 미세초음파를 통해 알코올분자를 분해하여 마실 때 부드럽고 담백한 느낌을 가지도록 만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여기에 필수 아미노산도 최초로 첨가하여 소주의 기능성을 한층 배가시켰다.



더불어 사는 무학

무학의 주류 개발에는 남다른 지역사랑을 느낄 수 있다.

화이트소주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류를 제조하는 무학은 종합주류제조업체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능가 소득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하동군의 청매실만을 이용한 6년숙성 매실주 “매실마을”, 마산시의 산국과 찹쌀만으로 생산되는 야생국화발효주 “가을국화”, 그리고 최근에는 함양의 복분자와 울산의 배를 이용한 제품개발도 완료하는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주류 개발로 지역경제와 홍보에도 애쓰는 지역대표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무학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낙도어린이 위문초청, 창원여성의 집, 국토대장정 후원, 해외동포 추모사업 후원 등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정신을 실천해 왔다.



13	14
----	----

13, 14 무학의 사회봉사활동

또한, 무학은 경남사회복지지를 위하여 기부, 후원 및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무학의 대표이사인 최재호 부회장은 경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경남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무학은 “사회봉사활동”의 전임직원 참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경남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어려운 시설이나 이웃들을 소개받아 회사계사판에 공고하고 휴일을 이용, 전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무학 관계자에 따르면, “자칫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례화하여 회사와 전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써 올해 전 임직원 봉사활동 400시간 달성을 이루도록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학은 2006년부터 승진자 심사에 사회봉사활동 항목을 추가,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이 없는 임직원은 정기승진을 비롯,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세워 전임직원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전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연말정산금 및 급여의 천원이하 금액을 별도 공제하는 “우수리 제도”를 도입하여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모으고 있다.

이러한 내부 방침은 그동안 무학이 실천해 온 불우이웃돕기와 기부문화를 다양하게 전개한다는 것과 전 임직원이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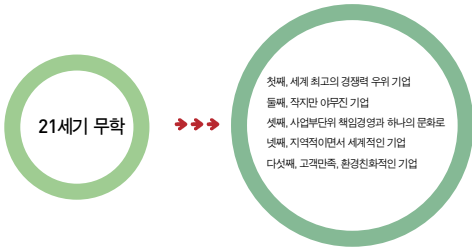
15
16

15. 연구소 내 제품검사 모습
16. 임직원 교육 현장



무학의 비전

무학은 다음 다섯가지의 경영방침으로
보다 나은 기업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계적인 일류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는 무한경쟁시대에서의
성숙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무학 전 임직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불철주야 노력
하고 있다. / 주류1팀



(주)무학주정 회사전경-신관

(주) 무학주정

시작... 발전...

1978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동한 무학주정은 이미 1950~1960년대에 설립된 국내 타 주정업체들에 비해 그 출발은 매우 늦은 편이었지만 현재는 국내 주정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업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같은 무학주정의 성장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원가절감,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통한 경영혁신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무학주정은 소주제조사인 (주)무학과 건설, 컨트리클럽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무학그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무학주정의 창립자인 최위승 회장은 창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에 부여된 소명을 다하며 오늘의 무학그룹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창립자인 최위승 회장이 창의와 성실에 근본을 두고 무학주정을 이끌어 왔다면 현재 대표이사인 최동호 사장은 창의와 성실의 근본에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더하여 무학주정을 이끌고 있다.

최동호 사장은 원가절감과 경영혁신을 통한 최대수익의 실현과 기술개발 및 인재 육성으로 세계화에 대비하며 유연한 조직과 창의적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료 분쇄 자동화 설비, 증류폐액 증발농축시

CEO Message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주식회사 무학주정은 창립 이래 한국 주류산업의 변천과 역사를 같이 해오면서 최고품질의 주정을 생산해 왔습니다. 무학주정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원가절감,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통한 경영혁신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둘러싼 외부경영환경은 갈수록 불확실하고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급등과 원자재 및 곡물가격의 상승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한, WTO체제의 출범과 FTA의 확산은 글로벌 경쟁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 사업의 방향은 국내의 고객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고객을 염두해두고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의 개척은 물론 해외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만듭니다. 2001년에 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탄올 사업의 핵심역량인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MH Bio-Energy Group Co, Ltd.를 설립하여, 대세에너지의 블루오션인 바이오에탄올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무학주정의 모든 임직원은 중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더욱 건실히 하여 무학주정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고객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위성 있는 성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모든 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중증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기업이 되도록 각자 맡은 바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최동호 대표이사



설, 에너지 절약형 신증류기 등을 설치하여 원가절감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물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매년 전직원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1996년에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상장을 시행하고 올해 11월에는 상장기업 엑스포에도 참가하여 적극적인 회사 알리기에 나서는 한편 해외진출을 위한 탄탄한 국내 기반을 마련하였다.



- | | |
|---|----------|
| 1 | 1 해외연수 |
| 2 | 2 IR 엑스포 |
| 3 | 3 연속증자기 |
| 4 | 4 신증류기 |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기업의 소명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은 무학주정이 크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중 하나이다. 지난 1985년 무학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소년, 소녀 가장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 인문 및 자연과학 각 분야에 종사하는 유능한 인재의 연구지원 뿐만 아니라 문화진흥을 위해 문화창조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있는 사회생활을 누리는데 기여코자 애 쓰고 있다.

무학주정은 무학문화장학재단을 통한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료시혜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마산연세병원에 매년 5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전달, 지역민을 위한 의료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희귀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에도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5년에는 상장기업중 매출액 대비 기부율 2위 기업이라는 영예도 차지하게 되었다.



장학사업



사회공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기업으로의 도전

최근 세계 에탄올 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는 도료 의정서의 발효로 석유대체연료로서 에탄올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에탄올 시장도 급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료가 부족하여 해외에서 많은 부분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내 현실은 에탄올과 그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들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에탄올 제조사들의 목전에 놓인 숙제는 값싼 원료 확보이다.

무학주정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지난 2001년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깝고 에탄올의 원료인 타피오카의 경작이 가능한 지역인 캄보디아에 합작법인 CJ CAMBODIA를 설립하고 바이오에탄올을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화 사업 추진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개척자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 현지 토양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경작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지인들의 느슨한 생활태도로 고용문제도 원활치 않았던 것이다.

몇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무학주정은 작년 말 서울사무소를 새로이 개설하고 현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9월 캄보디아 정부와 5년간 2천만 달러 상당의 타피오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지법인인 MH Bio-Energy Group을 지난 10월 설립하고 11월에는 년간 6만kℓ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생산공장을 착공하였다. 무학주정은 이를 시작으

5

4

4 캄보디아 에탄올공장 기공식

5 캄보디아 에탄올공장 기공식회장님 축사



로 세계 에탄올시장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무학주정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미래

이처럼 무학주정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내 주정산업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무학주정은 그 반대로 국내 주정산업을 성장가능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은 에너지 안보 확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체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에서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연구개발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이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인근의 일본과 중국도 이미 각종 법안과 시범 사업이 시행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학주정의 세계화 준비는 주정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계화를 위한 무학주정의 발걸음. 이것은 비단 무학주정의 미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주정팀